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 pp.253-276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충북불교계의 문화적 과제 연구

김 용 환  
(충북대학교)

### 《요약》

본 연구는 충북 불교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충북 불교계가 이 시대의 문화적 과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를 제시할 목표를 갖고 있다. 충북 불교계는 『불조직지심체요절』로 말미암아 세계 최초의 인쇄술 발명의 메카로 알려져 있지만, 문화적 주체성을 확립하여 현대의 문화적 위기에 대한 대안적 자세에서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충북 불교계는 침체기를 벗어나 미래지향적 좌표를 설정하고 문화적 방향제시를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정보문화적 시대적 특성과 문화 상대주의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정립하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대안을 이 연구에서는 ‘근본도량 세우기 운동’과 ‘현대문화위기 돌파구 운동’으로 집약하여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는 곧 불교의 기본정신으로 강조되는 지혜와 자비를 현대문화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적 특색으로 체계화함에 그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주제어: 충북불교계 현황, 문화적 과제, 근본도량 세우기, 현대문화위기 돌파구 운동

### 《Abstract》

## A study on the cultural task of Chungbuk Buddhist World

Kim, Yong-Hwan  
(Chungbuk University)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cultural phenomena in Chungbuk Buddhist World and pursued cultural task in this modern cultural crises. Although Chungbuk Province is well known as a Mecca of the art of the first printing in the world, The cultural independence is insufficient in the alternative attitude toward modern cultural crises. Now we focus two movements such as 'the establishment movement of fundamental temple' and 'the breach movement for modern cultural crisis' as the alternative task.

Key words: religious pluralism, cultural relativism, establishment movement of fundamental temple, breach movement for modern cultural crisis, cultural task.

## I. 머리말

이 논문은 충북불교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화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충북은 한반도의 거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으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이외의 보은군을 포함한 9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한정립 시대에는 마한에 속하였으나 삼국시대에는 고구려가 동북부를, 백제가 중부를 신라가 남부를 차지하여 삼국 쟁탈 지역으로 알려졌다. 통일 신라기에는 중원도로, 고려 공민왕 때부터 충청도로 지칭되었다. 불교계의 문화유적으로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인정받고 있는 『불조직지심체요절』이 발견된 흥덕사지, 법주사의 팔상전, 충주의 천불좌상, 괴산군의 미륵동석불, 증원군의 정토사법경대사 자등탑비<sup>1)</sup>, 제원군의 사자빈신사지 석탑<sup>2)</sup> 등을 들 수 있다.

1 정토사 법경대사자등탑비는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정토사지에 있는 보물 제17호. 높이 3.15m, 폭 1.45m, 두께 31cm. 943년(고려 태조 26) 최언호(崔彦鎬)가 비문을 짓고 구족달(具足達)이 글씨를 썼으며 승려 4명이 각자(刻字)하였다. 귀부(龜趺)·이수(蟠首)는 화강석으로 만들었다. 법경은 신라 말·고려 초의 명승으로 비문에 의하면 이름 현휘(玄暉), 속성은 이씨(李氏)이다. 879년(신라 헌강왕 5) 출생. 영각산사(靈覺山寺)의 심광(深光)에게 사사하였다. 906년(효공왕 10) 당나라에 유학하고 924년(경애왕 1) 귀국하여 국사(國師)로 존경받았다.

2 사자빈신사지 석탑은 충북 제천시 한수면(寒水面) 송계리(松界里) 사자빈신사지에 있는 고려 시대의 화강석 석탑으로, 보수할 때에 지대석을 8각 석재로 대치함으로써 매우 새로운 인상을 풍긴다. 이 새로운 석재 위에는 정사각형의 하대(下臺)가 놓였으며, 상부에 두꺼운 테를 돌려서 부연(附緣)을 삼았고, 그 밑에 각 면마다 삼구식(三區式)의 안상(眼象)을 조각하였다. 상면(上面)

특히 『불조직지심체요절』은 충청도인의 문화적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백운 경한 선사의 족적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문에는 그 유래를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원나라 지정 신묘년에 호주 하무산의 석옥청공 선사를 찾아 뵈었는데 선문답을 주고받는 동안에 석옥선사는 경한스님이 불도에 깊이 들었음을 알고 불조직지심체요절 한 권을 주어 그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말 밖의 뜻을 헤아려야만 말이 이치에 가 닿을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경한선사는 절강에서 돌아와 불도가 더욱 깊어졌지만 그 정도에 만족하여 정진을 거두지는 않았으며 청공스님이 불조들의 긴요한 법어를 몸소 가려 뽑은 일에도 그 뜻을 이어서 두 권으로 증보하여 후대에 남겨놓았다.”<sup>3)</sup>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로서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조직지심체요절』가 공인받지 못하다가 직지찾기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된 탓으로 올해 말 비로소 유네스코 문헌에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되었다. 흔히 충북의 문화는 지방의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기 쉽다. 그러나 직지찾기 운동을 통해 충북 흥덕사에서 발견된 『불조직지심체요절』이 이제 세계적 문화가치로 공인 받게 된 만큼 충북문화를 지방문화로 한정짓는 편협한 시각은 바로잡아져야 될 것이다.

우리는 현대의 문화상대주의와 종교다원주의의 문화적 과제를 인식하면서 현대문화 위기의 대안적 과제로서 ‘근본도량 세우기 운동’, ‘현대문화위기 돌파구 운동’의 방향을 잡아 이 문제에 대한 미래지향적 문화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충북 불교계의 현황

청주시의 대한불교조계종은 현재 6개 사찰이 종단에 등록되어 있다. 청주시의 조계종

에는 낮은 편이 있어 하층기단중석(下層基壇中石)을 받았고, 중석에는 넓은 우주형(隅柱形)이 4면에 표시되었으며, 여기에 명문(銘文)이 새겨졌다. 갑석(甲石) 또한 일매판석(一枚板石)으로, 밑에는 층단(層段)의 부연 대신 완만한 곡선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이 위의 상층기단중석은 이 석탑의 가장 특색 있는 부분으로 네 귀에 4구(軀)의 사자를 앉혀서 갑석을 받게 하고, 중심에는 지권인(智拳印)의 비로자나불좌상을 안치하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다. 하층기단중석의 명기(銘記)로 보아 건립 연대는 1022년(현종 13)임을 알 수 있다.

3 [白雲和尚抄錄佛祖直旨心體要節序](淸州 古印刷博物館所藏, 1378) ‘嘗有元至正辛卯 詣湖州霞霧山石屋瑛老師 接話之間 師知其閑之密契此道 以佛祖直旨心體要節一卷授之 欲廣其傳焉 復囑之曰 當於言外見之 斯言益切于理 閑公自浙而還 廬道愈着 不喜是斂之 亦繼瑛老 手抄佛祖喫緊之語 增成兩卷 俾貽後世’

은 제5교구에 속하며, 본산은 보은 속리산 법주사이다. 보살사에는 국내유일의 병립여래상이 있으며 청주시의 관음기도의 영험도량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찰에는 극락보존, 오층석탑, 보살사괘불등의 충북유형문화재가 있다.<sup>4)</sup> 특히 청주 무심천변 용화사의 7존 석불은 보물 제 985호로 지정되면서 문화재적 가치가 부각되었다. 여래입상은 앞면은 거불입상에 뒷면은 나한상이 조각되어 국내유일의 문화재적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청주시 미륵신앙의 요체가 되고 있다. 미륵용화정토의 구현은 법주사의 창건이념이면서 용화사의 미륵보전 중창불사정신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sup>5)</sup> 그리고 관음사는 청주의 포교당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신라말 고려초의 것으로 추정되는 술, 기와, 우물터 등이 1950년대에 발견되어 그 역사적 의의를 더해주고 있다. 기존의 조계종 소속의 사찰은 이와 같지만 1993년 안양에 본부를 둔 한마음선원이 청주에 청주지원(봉명동 833)을 개원하여 3명의 비구니를 중심으로 화두를 주시하는 마음공부를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로 주조한 직지심체는 청주

4 보살사(菩薩寺)는 청주시(淸州市)에 있는 사찰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제 5 교구 본사인 법주사의 말사이다. 567년(신라 진흥왕 28)에 법주사를 창건한 의신(義信)이 창건하였다. 충청북도지방유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된 극락보전(極樂寶殿)과 그 안에는 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24호인 이존병립여래좌상(二尊竝立如來坐像)과, 지장보살상·삼존불 등이 봉안되어 있다. 이 밖에 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65호로 지정된 오층석탑이 있는데, 1703년(숙종 29)에 건립된 것으로서 조선 중기의 석탑 양식을 고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5 법주사는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內俗離面) 속리산에 있는 절이다. 법주사의 정신적 지주가 된 미륵신앙(彌勒信仰)이나 법상종(法相宗)의 유식사상(唯識思想)은, 해공왕 때 이 절의 중흥(重興)에 크게 기여한 진표(眞表)와 그의 제자 영심(永深)에 의하여 발현(發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덕왕 때 중수(重修)하였는데, 지금 남아 있는 석물(石物)은 모두 이 때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그 후 여러 차례 중수를 하여 현존하는 목조건물은 모두 조선 후기의 것이다. 경내에는 유명한 법주사팔상전(法住寺捌相殿:국보 55)을 비롯하여 쌍사자석등(雙獅子石燈:국보 5), 석련지(石蓮池:국보 64), 사천왕석등(四天王石燈:보물 15), 마애여래의상(磨崖如來倚像:보물 216) 등의 국보·보물을 비롯하여 원통보전(圓通寶殿), 세존사리탑(世尊舍利塔), 사천왕문, 희견보살상(喜見菩薩像), 복천암 수암화상탑(福泉庵秀庵和尚塔), 복천암 학조등곡화상탑(學祖燈谷和尚塔) 등의 지방문화재가 있다. 이 밖에 대웅보전·조사각(祖師閣)·일주문(一柱門)·홍전문(紅箭門)·대종각(大鐘閣)·능인전(能仁殿)·석조(石槽)·수정암(水晶庵)·중사자암(中獅子庵) 및 여러 대사의 비, 암지(庵址) 등 많은 유물이 있다. 또 조선 후기까지 35칸에 2층으로 된 이 사찰의 중심 법당인 용화보전(龍華寶殿)이 있었고, 이 전각 안에 금색의 육장상(六丈像)이 있었다. 그러나 1872년 당백전(當百錢) 주조 명목으로 대원군에 의해 육장상은 압수되고 용화보전도 헐리게 되었다. 1989년 사월 초파일에 옛 용화보전 자리에는 높이 33m의 청동미륵불이 점안되어 법주사의 새로운 상징물이 되었다.

흥덕사지의 문화적 유산으로 손색이 없다고 할 것이다.<sup>6)</sup>

<표 1 :청주시 조계종 현황><sup>7)</sup>

| 사찰명 | 주소                | 창립년                      | 전화        | 주요활동                         | 비구<br>(니) | 신도(남) | 신도(여) | 계     |
|-----|-------------------|--------------------------|-----------|------------------------------|-----------|-------|-------|-------|
| 보살사 | 용암동 <sup>7)</sup> | 567창건<br>1872년중<br>수(日輪) | 56- 7526  | 병립여래<br>보존운동<br>관음기도         | 3         | 2.000 | 3.000 | 5.000 |
| 용화사 | 사직동<br>66- 2      | 1902                     | 274- 2159 | 미륵보전<br>중창불사<br>미륵신앙         | 6         | 300   | 2.000 | 2.300 |
| 관음사 | 우 암 동<br>산 14     | 1943                     | 56- 6254  | 포교활동<br>약 사 , 지<br>장회 활<br>성 | 3         | 800   | 3.000 | 3.800 |
| 화장사 | 명 암 동<br>산 29     | 1954                     | 55- 5758  | 새 신 자<br>입문교육                | 2(니)      | 100   | 200   | 300   |
| 평화사 | 봉명동<br>360        | 1936                     | 274- 1059 | 거 사 립 ,<br>마야부인<br>회         | 2(니)      | 100   | 400   | 500   |

둘째, 천태종은 594년 수나라 때 중국의 지자대사가 법화경을 중심으로 일심삼관의 수행법을 통합하여 선교를 회통시킨 종파이다. 대한불교천태종은 1945년 상월 원각대조사가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에 구인사를 창건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74년에 남대

6 직지심체는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見性成佛)>이라는 오도(悟道)의 명구를 줄여 나타낸 것이다. 판본은 경한이 입적한 3년 뒤인 1377년(우왕 3) 7월 청주목의 교외에 있던 흥덕사에서 금속활자인 주자로 찍어낸 것이 초간본(初刊本)이 된다. 상하 2권 중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하권 1책(첫장은 결락)뿐이며,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주자본은 활자의 주조술과 조판술이 미숙했던 고려시대에 관서(官署)가 아닌 지방의 사찰이 주성하여 찍은 것이기 때문에 활자의 크기와 글자의 모양이 고르지 않고, 부족한 활자를 목활자로 섞어 사용했기 때문에 인쇄상태가 조잡하다. 그러나 문헌상으로만 전해지던 고려 주자본 중 유일하게 전래된 활자본으로 최초로 금속활자를 창안하고 발전시킨 문화민족임을 실증하여 청주시의 세계에 과시한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7 청주시, 『청주시지 上』(청주: 충북대 인문과학 연구소, 1997), 981쪽.

충 대종사, 1993년 김도용 대선사가 제3대 종정으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있다.<sup>8)</sup> 이 종단의 종지는 會三歸一로서 삼승을 회통하여 일불승으로 귀일시킴에 있다. 소의경전은 [묘법연화경], [천태사교의], [법화삼대부]가 있으며 본존은 석가모니불로 안치한다. 대한불교천태종은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3대 지표로 삼아 상월 원각 대사의 가르침을 구현한다.

<표2: 청주시 천태종 현황>

| 사찰명 | 주소           | 창립년  | 전화                      | 주요활동                         | 승려 | 신도(남) | 신도(여) | 계     |
|-----|--------------|------|-------------------------|------------------------------|----|-------|-------|-------|
| 명장사 | 대성동<br>205-1 | 1975 | 223-0322<br><br>53-3928 | 다도회,<br>이웃돕기<br>불교범패<br>천태예술 | 2  | 800   | 2,000 | 2,800 |

셋째, 청주시의 대한불교태고종은 1970년에 기존사찰로서 조직되었으며 현재 32개 사찰이 종단에 등록되어 있지만 20개의 등록사찰이 중심적 활동을 하고 있다. 청주시의 태고종은 포교활동에 대한 등급별 평가를 행하고 있는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표3:청주시태고종현황>

8 구인사는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본산으로, 1966년에 현대식 콘크리트조(造)로 지은 이색적인 건물이다. 한국 천태종의 중흥조(中興祖)인 삼척 출신의 상월원각(上月圓覺:속명 朴準東)이 1942년 중국 티베트 등지에서 곤륜산(崑崙山)·오대산(五臺山)의 문수도량(文殊道場)과 아미산(峨嵋山)의 보현성지(普賢聖地) 등을 순례하고, 광복 후 귀국하여 1946년 소백산에 들어가 구봉팔문(九峰八門)의 연화지(蓮華地)를 찾아 천태지관(天台止觀)의 터전을 닦기 시작하였다. 이 절에는 5층 높이에 900평 넓이의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법당, 135평의 목조강당인 광명당(光明堂), 등 편의시설까지 50여 채의 건물이 있다. 또 사천왕문에는 국내 최대의 청동 사천왕상이 안치되어 있다. 생활 속에 자비를 실현하는 생활·실천 불교를 지향하며, 주경야선(晝耕夜禪)으로 자급자족한다.

9 같은 책, 982쪽.

| 사찰명  | 주소          | 창립년   | 전화       | 주요활동         | 승려법명 | 등급 | 신도  | 기타           |
|------|-------------|-------|----------|--------------|------|----|-----|--------------|
| 청화사  | 모충동 산36     | 1981. | 62-4675  |              | 동산   | 2  | 100 |              |
| 반야정사 | 사직2동 46-1   | 1978  | 274-5593 | 우란분재<br>일행사  | 일송   | 특  | 500 | 승려 3인        |
| 용암사  | 우암동 산4-1    | 1975  | 221-0534 | 비로자나<br>불 봉송 | 홍원   | 4  | 60  | 통일신라<br>고찰   |
| 신흥사  | 우암동 산 57    | 1986  | 56-1247  |              | 명호   | 1  | 90  |              |
| 목암사  | 수동 산 33     | 1950  | 53-7159  |              | 송파   | 3  | 80  |              |
| 광덕사  | 용담동 120-1   | 1955  | 58-3282  |              | 일봉   | 3  | 80  |              |
| 영화사  | 모충동 263-11  | 1970  | 62-8074  |              | 화담   | 5  | 40  | 불교재산<br>관리법  |
| 봉덕사  | 비하동 29-1    | 1984  | 231-0149 |              | 청공   | 1  | 200 |              |
| 백운사  | 용담동 산 18    | 1970  | 56-0349  |              | 해명   | 1  | 150 | 불교재산<br>관리법  |
| 덕선암  | 수의동 93-1    | 1970  | 233-6078 |              | 법인   | 3  | 70  | 불교재산<br>관리법  |
| 불교사  | 모충동 335-134 | 1994  | 62-9749  |              | 지담   | 3  | 60  |              |
| 보암사  | 울량동 106-3   | 1962  | 211-0579 | 포교활동         | 경봉   | 3  | 100 |              |
| 화암사  | 모충동 485-3   | 1975  | 62-0011  |              | 송담   | 4  | 50  |              |
| 대성사  | 용담동 6       | 1970  | 55-1379  |              | 학송   | 4  | 60  | 불교재산<br>관리법  |
| 용운사  | 내덕동 85-2    | 1977  | 59-7957  |              | 성화   | 4  | 50  |              |
| 서기사  | 울량동 91-1    | 1970  | 211-3235 |              | 보현   | 4  | 60  | 불교재산<br>관리법  |
| 복천암  | 수동 5-2      | 1970  | 59-4043  |              | 혜근   | 1  | 100 | //           |
| 연등사  | 모충동 484     | 1976  | 62-2534  |              | 벽송   | 4  | 60  |              |
| 삼곡사  | 용담동 18-1    | 1969  | 221-6312 |              | 금광   | 4  | 70  |              |
| 보현사  | 우암동 산 25    | 1973  | 59-4926  | 경승활동<br>거사회  | 원봉   | 1  | 100 | 원봉스님<br>교구활동 |

넷째, 대한불교진각종은 1947년 회당 손규상 대종사에 의해 창교된 이래 1963년 종단 등록을 마치고, 그 이듬해 학교 법인 회당 학원을 설립하고 1991년 종립 위덕대학의 설립을 교육부로 부터 인가받게 되었다. 종지는 부처의 본심이며 종조의 心印인 육자진언을 수행의 본존으로 받아들여 三密加持의 卽身成佛 도리를 구현함에 있다. 소의경전으로는 [대일경], [금강정경], [이취경], [종조법전]이 활용되고 있다.<sup>10)</sup> 정기간행물로는 [진각종보], [교화연구], [진각문학]등이 있다. 주요 의례는 새해불공, 월초불공, 자성일불공 등이 행해진다.

<표4 :청주시의 진각종 현황<sup>11)</sup>>

| 사찰명       | 주소          | 창립년  | 전화      | 주요활동           | 정사 | 신도(남) | 신도(여) | 계  |
|-----------|-------------|------|---------|----------------|----|-------|-------|----|
| 覺戒<br>心印堂 | 영동<br>101-6 | 1950 | 56-5035 | 청 정 국 토<br>가꾸기 | 1  | 4     | 26    | 30 |

다섯째, 1963년 종조 원정성사가 진각종 총인직에 취임하였으나 1971년에 원정성사가 진각종 총인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을 사퇴함에 따라 1972년에 서울 선교부를 개설하고 종명을 불교총지종으로 정하게 되었다. 현재 통리원장은 안중호가 맡고 있으며, 종지는 법신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옴마니반메훔’을 본존으로 모시며, 준제진언을 염송하고 이 몸 그대로 부처를 이루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소의경전은 [대일경], [금강정경], [이취경]을 중시하며 주요의례는 월초불공, 자성일불공을 강조하고 있다.

<표5: 청주시의 총인종 현황>

| 사찰명 | 주소           | 창립년  | 전화      | 주요활동           | 전 수 | 신도(남) | 신도(여) | 계   |
|-----|--------------|------|---------|----------------|-----|-------|-------|-----|
| 서원당 | 내덕동<br>651-1 | 1974 | 56-3813 | 밀 교 연 구<br>활성화 | 1   | 50    | 150   | 200 |

10 밀교는 현교(顯敎)에 대한 대칭로서 진각종을 이리한 범주에 넣을 수 있다. 밀교에 대한 관점은 현세적 욕망을 처리하는 주술조직(呪術組織), 또는 극단적인 신비주의 속에서 발달한 상징철학으로 구분된다. 전자를 잡밀(雜密, 또는 呪密)이라 하여, 금기(禁忌)·부적(符籍)·주법(呪法) 등으로 표현하는 데 반해, 후자는 순밀(純密, 또는 通密)이라 부르는데, 7세기 후반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여겨지는 《대일경(大日經)》과 《금강정경(金剛頂經)》이 기본경전이다.

11 같은 책, 984쪽.

여섯째, 재단법인 선학원은 1934년 종로구 안국동에 설립된 것인데, 청주시에는 1968년 지부가 설치되어 현재 1개사찰이 여기에 속해 있다.

<표6: 청주시의 선학원 현황>

| 사찰명 | 주소         | 창립년  | 전화      | 주요활동       | 승려 | 신도(남) | 신도(여) | 계    |
|-----|------------|------|---------|------------|----|-------|-------|------|
| 풍주사 | 명암동<br>산 7 | 1968 | 56-5585 | 관음보탑<br>건립 | 5  | 500   | 3000  | 3500 |

일곱째, 대한불교수도원은 청주시 수동에 있던 신용화사가 조계종 소속으로부터 벗어나 1976년에 불교단체로서 <대한불교수도원>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표7: 청주시의 대한불교선학원 현황<sup>12)</sup>>

| 사찰명         | 주소   | 창립년  | 전화      | 주요활동         | 비구니 | 신도(남) | 신도(여) | 계    |
|-------------|------|------|---------|--------------|-----|-------|-------|------|
| 대한불교<br>수도원 | 수동67 | 1952 | 56-2655 | 재가신도<br>회 조직 | 3   | 200   | 2000  | 2200 |

앞에서 살펴 본 청주를 포함한 충북의 종교별 인구 비율은 전국 종교별 인구 비율과 비교할 때, 불교와 천주교 인구의 비율은 다소 높은 반면 개신교와 유교의 인구 비율은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8 : 충북의 종교인구 비율<sup>13)</sup>>

<표 8>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불교는 모든 시·군에서 20%를 넘는 고른 분포 비율을 보이고 있다. 법주사가 있는 보은군(28.64%)과 장락리 7층 모전석탑 참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천시(26.88%)<sup>14)</sup>, 천태종 본산이 있는 단양군(26.67%) 등에서 약간 높은 반면, 개신교 비율이 높은 충주시(21.36%)와 영동군(22.78%)에서 다소 낮은 것 이외에는

12 같은 책, 985쪽.

13 여기서 도표에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행한 『CD 1995 인구 주택 총 조사』, 버전 1.01(1998.4)이다.

|           | 불교 (총인구대비) | 개신교 (총인구대비) | 천주교 (총인구대비) |
|-----------|------------|-------------|-------------|
| 청주시       | 22.97%     | 17.55%      | 7.12%       |
| 충주시       | 21.36%     | 15.85%      | 7.03%       |
| 제천시       | 26.88%     | 15.49%      | 5.13%       |
| 청원군       | 20.96%     | 14.46%      | 5.00%       |
| 보은군       | 28.64%     | 9.26%       | 2.88%       |
| 옥천군       | 24.94%     | 10.34%      | 3.55%       |
| 영동군       | 22.78%     | 12.12%      | 4.73%       |
| 진천군       | 24.00%     | 12.92%      | 5.44%       |
| 괴산군       | 26.54%     | 11.14%      | 4.04%       |
| 음성군       | 23.99%     | 11.85%      | 10.25%      |
| 단양군       | 26.67%     | 14.41%      | 3.17%       |
| 증평출<br>장소 | 24.58%     | 13.24%      | 6.08%       |

시·군별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나 충주시의 불교 문화유적으로 철불좌상은 고려시대의 보물로서 손색이 없다.<sup>15)</sup> 이처럼 훌륭한 문화유적의 존재보다 종교활동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는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에 있어서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난 세기동안 누적된 통계조사결과가 있는 데 반해 충북에서는 과거의 종교상황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가 드물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불교집단의 변화를 기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전통문화적 가치를 지닌 불교문화재를 보전하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의식이

14 제천시 장락리 7층모전석탑(堤川長樂里七層模磚石塔) : 충청북도 제천시(堤川市) 장락동(長樂洞)에 있는 통일신라 때의 칠층석탑. 높이 9.1m. 제천시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속칭 창락사터〔蒼樂寺址〕에 있다. 석재는 회흑색(灰黑色)의 점판암(粘板岩)을 썼다. 기단은 단층으로, 몇 개의 자연석으로 짜고 그 위에 탑신부를 올려 놓았다. 초층 4귀퉁이에는 화강암석주를 세웠는데, 이는 다른 전탑이나 모전석탑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기법이다. 남북 두 면에는 화강암으로 문주 2개를 세우고 이맷돌을 얹어 방광을 만들었는데 남쪽의 것은 없어졌다. 옥신(屋身)은 동서 두 면은 모전석으로, 남·북 두 면은 방주와 방광 사이에만 쌓았으며 돌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15 충주 철불좌상은 충북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고려시대의 철조 불상으로 보물 제98호이다.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양식을 표현한 저명한 불상이다. 나발(螺髮)의 머리에는 육계(肉髻)가 둔하게 표현되었으며 육계 중앙에 장엄구가 있다. 이마가 넓고 턱으로 내려올수록 좁아져 3각형의 얼굴이 되는데 작은 코로 하여 올라간 긴 눈썹, 치켜올린 길고 넓은 눈, 코에서 시작하여 꼭 다문 입가로 내려오는 팔(八)자형 주름 등으로 말미암아 무속적인 무서운 인상으로 변해버렸다. 두 손은 없어져 인상(印相)은 알 수 없으나, 두 팔은 똑같이 앞으로 나오고 있으며 결과부좌한 앞음새까지 빈틈없는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충북불교계에 남아 있다는 것을 볼 때,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불교정신을 현대에 살려 새로운 삶의 가치로 재현하려는 능동적 자세나 현대문화적 위기를 직시하여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 등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21세기는 이전 시대에 비해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형태가 도래하기 때문에 기존가치체계의 붕괴에 따른 대비책의 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sup>16)</sup> 이러한 관점에서 충북불교계의 몇 가지 모순적 양태를 찾아 볼 필요가 있다.

### III. 충북불교계의 비판적 양태

충북불교계는 종교 의례적 측면에서는 많은 장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행적 측면에서 사회봉사적 활동의 측면에서 미흡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생태위기에 대한 적극적 자세나 종교다원주의의 관점에서 다른 종교전통과 열린 대화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들은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서구사회에서 칸트의 인식론에 기초하여 종교다원주의의 문제점까지 지적하는 노력을 볼 때, 상당한 대조가 된다.<sup>17)</sup> 특히 불교 종교의례에 해당되는 염불, 축원, 사십구재의 항목에 있어서는 충북 불교계가 전통계승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대인의 문화적 위기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발우공양에 있어서는 큰 사찰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지금(今)의 마음(心)’으로 다른 망념이 들지 않도록 부처님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염불은 어느 사찰에서나 강조되고 있지만 다른 지방과는 달리 미륵여래의 명호를 외거나 아미타불등의 명호를 지송하는 의식이 특별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미륵신앙과 미타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18)</sup> 이러한 경우에도 기복적

16 Kennedy, Paul.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Random House, 1993), pp. 151ff.

17 Hick, John, *Problems of Religious Pluralism*,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85), p.40.

18 미륵신앙은 석가모니 부처가 열반에 든 뒤 56억 7000만 년이 지나면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는 미륵을 믿는 신앙이다. 그때의 세계는 땅은 유리와 같이 평평하고 깨끗하며 꽃과 향이 뒤덮여 있다고 한다. 아름다운 세상에 미륵이 수범마와 범마월을 부모로 삼아 태어난다. 그는 출가하여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하고 3회에 걸쳐 사제(四諦)·십이연기(十二緣起) 등의 법문을 설한다. 법주사의 미륵여래는 충북의 중요한 문화유적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결국

신앙이 위주가 되어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거나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일반신도의 축원(祝願) 요청의 경우, 소원을 아뢰는 축복의 헌공의식과 함께 특정 불자의 발원내용을 기원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도기간 중에는 행선 축원을 하지 않고 정근후 상단축원을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전통적 의례를 단순히 반복하려는 자세만 나타날 뿐, 다른 종교 전통과의 대화를 시도하면서 현대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설정하려는 모습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불교의 근본정신이 무아적 연기관을 체득하여 생명을 살려가기 위한 의식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 현대의 충북 불교계는 신도의 소원성취를 위한 방편적 차원에서 수동적 역할에 머물고 있음은 근본불교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문제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원숙한 종교인은 정통적 교리에 충실하면서도 타종교인들과의 관용과 협력을 통하여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힘을 쓰게 된다.<sup>19)</sup>

셋째, 충북불교계의 사찰에서는 사람이 죽은지 49일만에 지내는 法事로서 죽은 뒤 中有기간 동안 부처님께 예배하는 사십구재(四十九齋)를 집중적으로 행하고 있다.<sup>20)</sup> 이

---

이 미륵신앙은 미륵불이 출현하는 국토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에 대해 설함으로써 중생으로 하여금 최악의 종자와 모든 업장과 번뇌의 장애를 끊고 자비심을 닦아서 미륵불의 국토에 나도록 하는 데 그 진의가 있다.

미타신앙은 극락세계의 아미타불(阿彌陀佛)을 신봉의 대상으로 삼는 대표적 불교신앙의 하나. 정토신앙(淨土信仰) 또는 아미타불신앙이라고도 한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속세의 서쪽에 위치하는 청정불국토(淸淨佛國土)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신앙이라고 한다. 10겁(劫) 이전에 국왕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한 법장비구(法藏比丘)가 가장 완전무결한 이상세계를 이룩하고자 48원(願)을 세우고 여러 가지 보살행(菩薩行)을 닦은 뒤 48원을 모두 이루어 아미타불이 되었으며, 48원이 모두 성취된 세계가 곧 극락정토이다. 이 극락세계는 괴로움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과 편안함만이 있으며, 일체의 윤회가 없다 한다. 그러한 극락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미타불을 기쁜 마음으로 믿어서 한 생각으로 지성껏 발원(發願)하고 진심으로 귀의하면, 그 목숨이 다하는 날 서쪽 극락에서 아미타불을 비롯한 성중(聖衆)들이 와서 그 사람을 맞이하여 가기 때문에 곧 왕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19 윤이흠, 『현대인의 삶과 종교』, (서울: 고려한림원, 1993), 36쪽.

20 49재는 사람이 죽은 뒤 49일째에 치르는 불교식 제사의례이다. 6세기경 중국에서 생겨난 의식으로 유교적인 조령숭배(祖靈崇拜) 사상과 불교의 윤회(輪廻) 사상이 절충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불교의식에서는 사람이 죽은 다음 7일마다 불경을 외면서 재(齋)를 올려 죽은 이가 그 동안에 불법을 깨닫고 다음 세상에서 좋은 곳에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비는 제례의식이다. 그래서 칠칠재(七七齋)라고도 부르며, 이 49일간을 '중유(中有)' 또는 '중음(中陰)'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 죽은 이가 생전의 업(業)에 따라 다음 세상에서의 인연, 즉 생(生)이 결정된다고 믿기 때

경우에 죽은 이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부처님께 바치고 난 후, 죽은 사람을 모시는 待靈과 죽은 사람의 영혼(靈駕)에게 음식을 베푸는 施食이 거의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다. 조상 선대에 올리는 제사로서 기재(忌齋)를 충북불교계의 사찰에서 많이 대행하고 있음도 특징적이라고 할 것이다. 영가를 위한 의식은 강조되지만 다시 태어나는 생명을 위한 의식은 거의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를테면 업을 해소하기 위해 생명이 잉태되고 임신부의 태중에서 발육되는 과정에 대한 태교에 대해 불교적 관점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생명체를 위한 불교적 대안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에 있다. 아울러 안락사와 임신중절 등의 현대의 문화위기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북의 신세대의 사람들에게는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넷째, 사찰의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발우공양(鉢盂供養)이 충북의 불교계에서는 작은 사찰 중심으로 사라져 가고 있음은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먼저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삼악도의 고통 받는 중생 고통을 안타까워하고 음식물과 물을 아끼는 마음으로 밥을 먹고, 일체 중생에 회향하려는 염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오관계(五觀偈)를 외움으로써 식사 준 분의 은혜, 수행부족에 대한 겸손, 탐심의 버림, 진리완성을 위한 다짐을 하게 되는 데, 현대문화와 이질적인 것으로 비쳐진다. 현대의 다종교 상황에서 종교전통에 대한 평가는 부지불식간에 이루어 지게 마련이다. 흔히 그 평가기준으로 사회정의감의 실현, 미래지향적 문화적 과제 이행, 종교전통간의 열린 대화의 실천등과 같이 현대윤리적 문제에 대한 실천력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현대 종교문화가 그 다원현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대화는 필연적인 것이다.<sup>21)</sup>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충북 불교계의 문화위기적 대안 자세가 안이한 실정에 있다고 할 것이다.

#### IV. 충북불교계의 문화적 과제

앞서 언급된 문화적 위기감을 수용하면서 충북불교계가 미래지향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통교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요청되며 이를 윤리적 실천 운동으로 지속시켜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화 상대주의와 종교다원주의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

문이다. 원래 불교의 '무아설(無我說)'에 따르면 개인의 생전의 행위 자체에 대한 업보(業報)는 그 사람 개인에 한정되며, 어떤 방법으로도 자녀 또는 그 후손 누구에게도 전가될 수가 없으며 전가시킬 수도 없다고 말한다.

21 정진홍외,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윤리』, (서울: 집문당, 1994), 70쪽.

면서 자기의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충북 불교계의 장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것이다. 이는 곧 근본불교정신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면서 현대문화위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실천운동을 마련함에 관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각각 ‘근본도량 세우기 운동’과 ‘현대문화위기 돌파구 운동’으로 부르고자 한다. 앞의 경우는 근본불교정신에 맞는 ‘네트워킹 구축운동’, ‘법음 조직의 정비운동’, ‘상징 활성화와 인재양성 운동’의 세 가지 운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뒤의 경우에는 ‘복합 동기화(動機化)에 대한 돌파구운동’ ‘권력남용 저지와 운영투명을 위한 돌파구 운동’, ‘열린 해석의 돌파구 운동’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우리는 문화적 대안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1. 네트워킹 구축운동

네트워크(Network)란 컴퓨터 간에 상호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처리 장치나 노드로 연결된 통신 채널을 의미한다. 여기서 노드란 컴퓨터나 터미널, 워크스테이션 등 데이터를 다른 장소로 중계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충북대학교구에 해당되는 법주사에는 이러한 노드가 있어 통신 채널을 통해 각 사찰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실제로 법주사에서는 수년전부터 현대 정보화 물결에 순응하는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말사들의 상호간 데이터 교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네트워크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불교의 근본정신이 무엇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항목들을 열거하여 사회실천적 운동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킹(networking)은 사람들이 만드는 갖가지 종류의 것들을 횡적으로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을 말한다. 이 개념이 주목받게 된 것은, 선진자본주의 사회가 정보사회로 불리게 되는 단계 즉 다양한 정보교환이 자유롭고 손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단계를 전제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각 개인이 그대로 횡적으로 연결하여 자주적인 조직을 만들어가기 때문인데 본사와 말사간의 충북의 주요 사찰간의 능동적인 연결고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네트워킹의 형성은 무엇보다도 근본불교 정신의 내면화에 있다. J. 스탬프스는 그 가치를 치료, 공유, 자원이용, 새로운 가치창조, 학습, 성장, 진화의 7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이들 가치의 맥락 가운데서 네트워크 만들기가 이루어지는데 네트워킹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질적인 사회관계 즉 왜곡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신뢰관계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내부의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네트워크가 확인되는데, 외부와의 명확한 경계선은 없고 열린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충북 불교계에서도 근본불교정신을 학습하게 하고 성장할 수 있는 대안적 자세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은 커뮤니케이션 관계의 결절점(結節點)을 이루고 그것과 집단은 등등한 중요성으로 인정되어 상하관계가 정립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네트워킹은 일종의 조직이라고 할 만하지만, 사람들의 고정적인 분업관계를 통계적으로 정리한 관료제적 조직과 달리 주체성을 지닌 자율적인 참가자가 <전체와 부분의 일체화>를 달성하려고 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 네트워킹에서는 복수(複數)의 선택(選擇)이 가능하며 수많은 지도자를 평등하게 연결짓기 때문에 불교의 평등사상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합된다.

불교계의 네트워킹의 과제에 있어서는 지도자 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불교의 가치체계를 정보의 네트워킹으로 활용하여 비전있는 사회로 개조함을 말한다. 이 경우 중요한 문제의식은 '전통'의 가치와 현대의 '인격'의 개념사이의 긴장과 조화를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달려 있다.<sup>22)</sup> 그것은 충북이라는 지역적 커뮤니티 대신 정보공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정보커뮤니티가 출현하여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경제·문화 시스템이 빠르게 됨을 말한다.

충북을 중심으로 자비의 사회화 운동을 확산하여 세계적인 규모로 전개시키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정보 커뮤니티의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홈 페이지를 통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종단간의 화합적 차원에서 범불교계의 네트워킹 구축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본사의 호스트 컴퓨터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진 그룹이 있다면 말사에는 소모임을 둘 수 있고, 월드 와이드 웹을 사용해서 접속하면 이 그룹에 해당하는 근본불교 정신에 부합되는 하이퍼 텍스트를 마련하게 된다.

불교의 법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언어로 표현될 수 밖에 없다. 메시지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변형시키는 해석을 배제하는 보수성이 나타나 네트워킹에 반대하는 의견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화의 고정적 요청은 시대적 상황에 따른 가변성을 배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포교 일선에서는 복잡한 일련의 이해방법이 모색된다. 어린이포교, 청소년포교, 대학포교, 군포교, 경

22 Hans G. Kippenberg, Religion and Reason, (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0), p.52.

찰포교, 교도소포교, 자원봉사 포교, 장의염불 포교, 사찰포교, 직장포교 분야로 세분된 것을 네트워킹으로 연결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공통된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소활동팀을 구성하여 포교사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형성을 이룩하는 운동이 이제 필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2. 법음 조직의 정비운동

충북 불교계는 근본불교의 깨달음의 순수성에 의하여 조직의 정비가 요청된다. 새로운 기능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직책을 낳게 된다. 그러나 조직의 관료화로 치닫게 되면 보수적 경향성이 강조되고, 자연히 일반 신도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처럼 깨달음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불교교단 본연의 자세에서 조직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할 수 있다. 조직의 정비에서 중요한 것은 종교적 지식을 갖춘 인원을 증강하고 활동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감행하되 사찰 예산에서 일정 비율로 법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책정하는 등 종단의 사활을 걸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사찰마다 포교국 산하에 법회 전담부서를 개설하여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유아) 포교원’까지 개설하여 사찰에서 책임지고 포교를 해 나가야 한다.<sup>23)</sup> 청소년 포교도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하여야 한다. 불교 학생회나 문화답사반 등에 대하여 해당 지역 사찰에서 관심을 기울여 결연(結緣)도 하고 지원도 해 주면서 사찰 중등부 법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행생활을 성숙시켜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형별로 나누어 법음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찰에서 불교교수회 또는 대불련의 법회를 적극 지원하여, 대학의 포교를 활성화하고 대학생들이 학창 시절은 물론 졸업 후에도 신행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찰마다 거사회를 조직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여론의 형성에도 주목

23 넓은 뜻의 포교는 사람들이 속세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삶의 방식이 가능하도록 파견되어 일하는 것을 가리키며, 좁은 뜻의 포교는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펼침으로써 많은 신도를 얻고 제도적 확장을 도모하는 일이다. 포교방법으로는 크게 신앙공동체(절)에 들어감으로써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직접적인 방법과,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봉사에 한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뉜다.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새로운 조직의 정비는 불교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 생활화를 위해 직장별·직능별 법회를 활성화하는 쪽으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사찰에서 인근 직장·관공서·직능단체들을 파악하고 종교 전문가 양성과 실행 프로그램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3. 상징 활성화와 인재양성 운동

근본 불교정신의 깨달음과 법에 대한 원초적 동기 부여가 지속적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그 특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불교의식은 이러한 측면에서 영성적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요건이 되며, 상징적 요소들은 지속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테면 법신을 뜻하는 ‘연화장세계’는 향내나는 큰 바다위의 연꽃을 상징으로 장엄함을 보여주고 있다.<sup>24)</sup> 그러나 집단적인 의식은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과 태도로 말미암아 상징과의 공감성을 상실하는 요소로도 작용하여 결국 소외현상을 야기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적 매개물을 사용하는 가운데 성스러움에 대한 의미가 상실되며, 경험적 상징을 사용하여 궁극적 존재를 나타냄으로 카리스마를 일상화시킨다. 따라서 상징에 의존하는 제의는 기존의 형식에 따른 의례에 불과하고 원래 불교의식의 원초적 목적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상징소격화 현상은 상징을 파괴하거나 불상에 대한 거부적 몸짓으로 드러나는 일종의 상징 불감증 현상을 수반한다.

불교계의 최대 현안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청소년과 대학생 신도에 대한 사찰의 지원과 지도는 절실하게 요청된다. 물론 이상과 같은 활동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은 스님들의 적은 인력으로는 역부족이라 생각될 수 있다. 현재 충북의 조계종 본산인 제 5 교구, 법주사에는 4명 이하의 스님이 포교를 전담하는 실정에 있다.

조계종만 하더라도 종법상 본사에 상임포교사 1인 이상을 두게 되어 있는데도 상임 포교사를 둔 사찰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포교사 자격만 주고 종단이나 사찰이 아무 일도 주지 않는다면 포교사 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사찰에서는 그들의 근기와 능력에 맞는 포교의 책임을 주어야 한다. 그들의 신심과 능력이 부족하면 소속 사찰에서 책임지고 계속 재교육하고 신심을 키워 포교사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하여야 한다. 어린이·청소년 포교, 사회 복지 사업,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사찰 안내 및

24 구미래, 『한국인의 상징세계』, 서울: 교보문고, 1994, 78쪽.

그 밖에도 연꽃은 중생들이 청정한 자성을 구축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등의 다양함이 있다.

환경 보호활동 등에 이들이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인력이 확보되기 이전까지는 우선 사찰마다 현실적 여건에 맞게, 그리고 특성을 살려 전문적인 포교 영역을 확보하여 한 가지 분야에서라도 꾸준히 포교에 정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신행경력이 오래되어도 교리에 대한 지식이나 수행 수준은 높지 않기 때문에 각종 신행조직의 중간 관리지도자로서 포교사의 역할이 중차대하다. 포교사들부터 사찰, 그리고 신행 조직 내의 신뢰를 형성해 내면서 다원화되는 대중의 요구와 정서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일에 도움이 되며, 생활 속에 봉사하고 모범을 보이는 신뢰를 형성할 때 비로소 공감대가 형성된다.

#### 4. 복합 동기화(動機化)에 대한 돌파구 운동

원시불교에서는 세존이 진리를 선언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명백한 관계로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딜레마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형성된 안정된 구조는 집단 목표에 맞도록 여러가지 동기들을 세존의 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었다. 석가 세존당시에는 당시의 무익한 철학 논쟁의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상당한 호소력을 나타냈다. 더우기 바르나 계급제도를 공격하였고,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게 되었다. 브라만교에 비해 카스트와 성적 차별의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석가 세존은 악을 선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하였고 중상과 욕설에 화를 내지 않았다. 더우기 평민의 언어인 팔리(Pali)어의 사용은 평민들 사이의 확산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전문적인 교단 계급이 생겨나면서 석가 세존에 대한 흠모로서 만족할 수 없었다. 교육과 지도력 등에서 발휘되는 독특한 힘에 대한 새로운 동기부여가 나타났다. 이제 승려들은 '세상 사람의 일부'가 되었고,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고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초기의 법에 귀의하는 단순동기에서 벗어나서 복합 동기화에 따른 불교신앙 목표와 가치의 붕괴현상이 야기 되었다. 아울러 현대의 생태위기, 안락사, 임신중절등의 문화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제설정을 운동으로 전개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류의 이기적 욕구에 편중된 가치 체계와 거기에 입각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한다.<sup>25)</sup>

충북의 도시에 위치한 사찰에서는 도시민들의 생활 리듬에 맞추어 법회를 다양하게

25 김용정의, 『환경과 종교』, 서울: 민음사, 1997, 134쪽.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음력 재일 중심의 전통적 법회는 잘 지켜 나가야겠지만, 직장생활 등으로 시간을 내기 힘든 도시민들의 신행생활을 위해 토요일법회나 일요일법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법회는 가족법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젊은 층과 고학력층 신도를 위한 특별 법회는 필수적이다.

충북지역의 불교대학에서는 신심과 학덕을 갖춘 법사 확보에 주력하여야 하며, 현대인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재 개발과 교과 과정, 학제 편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 지역의 사찰 스님들도 불교대학에 강의도 지원하고 신도교육도 위탁하는 등 불교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불교대학들이 활기차게 운영되어 불자들이 불교를 바로 알고 실천할 때 새천년 시대에 부응하는 대비책이 될 것이다. 법사가 불교대학을 통하여 지속성, 책임성의 신뢰를 형성한다면 여러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 5. 권력남용 저지와 운영투명을 위한 돌파구 운동

신앙이 의심이라는 취약성을 항상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발적 귀의를 지지하고 뒷받침해주기 위해 사회적 동의와 합법적 권력에 의존하게 된다. 사회통제를 요청하는 사회 지도자들은 종교적 권력과 세속적 권력을 연합시키려고 꾀한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불신자들에게 ‘제의작’ 숙청을 강요함으로 불법적으로 폭도행위자들을 끌어들이고 폭력수단에 호소하게 된다.

이러한 법난적 요소는 사회를 위한 종교를 강화하며 종교에 대한 의심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교적 자발성을 훼손하여 순수한 귀의자들을 배제시키는 위험을 드러내게 된다. 이처럼 권력 남용화 법난은 교단내에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교단 외부에서 권력이 남용되어 미치는 법난으로까지 치닫게 된다. 같은 금오문 중이지만 용화사 조계종 스님을 주축으로 하는 세력과 금산사 스님을 주축으로 하는 종단분규는 많은 불신을 가져왔다. 아울러 이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절실해지고 있다. 그것은 사찰운영위원회에 의한 사찰운영을 투명하게 전개하는 것에 달려 있다.

지난해 종단분규를 계기로 고질적인 분규와 부패의 원인으로 사찰운영의 불투명과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견해가 많다. 1994년 종단개혁과 더불어 사찰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신도들의 신뢰와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사찰운영위원회법을 제정하였건만, 본사·말사와 포교당까지 반드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사찰운영위원회는 현재 극소수의

사찰을 제외하고는 거의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형식화되어 버린 실정이다.

신도들이 신심이 없다고만 탓할 것이 아니라 사찰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찰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신도들은 더욱 신심을 내어 불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스님들도 세간의 오해와 지탄을 받지 않을 것이며 고질적인 종단분규와 비행도 종식될 것이다. 타종교에서는 아주 작은 교회도 대부분 재정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사찰만이 그렇지 못한다면 불교는 시대에 뒤떨어질 뿐 아니라 현대의 '열린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되고 말 것이다. 사찰 운영은 신도의 참여로 투명하게 해 나갈 때만이 청정도량과 청정승가를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불교 신도들은 합심하여 서로 도와 생활 속에 종교문화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불교는 오랜 옛날부터 '향도(香徒)'와 같은 훌륭한 상부상조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신도들이 생활 속에서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사찰에서 계도하여야 하며 조직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도의 거주 지역별로 구역법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불자들 상호간의 결속력, 신도의 생활에 대한 스님의 지속적 열정과 관심, 법회의 생활화는 신도회와 사찰 발전의 원동력이다. 또한 구역법회는 효과적인 신도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수동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현대문화적 위기 의식을 느끼는 계층(장애인, 복지봉사, 군인 등) 및 미래세대의 계층(어린이 청소년 등) 활동에 대한 분석과 대비책을 마련하는 운동이 올바르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6. 열린 해석의 돌파구 운동

불교가 우주이법에 대한 승단적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한정된 이념과 편협한 태도를 신성시하여 환경에 대한 사회적 지식과 자연을 통제하는 인간노력의 향상을 저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불교의 긍정적 요소가 법의 포괄성과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의 빛에 인도받지 못할 때는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경전들 속의 비유적 특징은 화자가 주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청자의 삶 속에 배어있는 주체를 복원시켜주는 화법을 구사하고 있음이다.<sup>26)</sup> 따라서 우리는 불교

26 고영섭, 『불교경전의 수사학적 표현』, 서울: 경서원, 1996, 334쪽.

와 사회와의 변증법적 관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새시대를 열망하는 가치관이 지배되면서 불교교리를 새로운 각도로 해석하되, 전승된 의미체계의 골격을 수정하는 열린 해석의 자세가 포교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20세기에 들어와 암베드카르(Ambedkar, V.R.)에 의해 봄베이에서 인도불교협회를 창설하여 신불교운동이 전개되었다.<sup>27)</sup> 푸나,와르다, 낙푸르등에도 신불교들이 탄생되었는데, 이는 상좌부계통에 기초를 두면서 주로居士를 중심으로 한 대승불교 복원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운동은 공화당이라는 정치운동으로 더욱 구체화되면서 많은 신도들이 결집되는 계기가 되었다. 암베드카르의 불교사상은 [붓다와 그의 다르마]에서 새로운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먼저, 그는 ‘인생에 고통이 있다고 하는 주제는 비관주의적 색채가 강하며 불교의 매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불교는 비관주의가 아니라 사성제(四聖諦)에서 보듯이 고통의 제거를 바라는 것으로 인생의 희망을 제시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불교가 비관주의는 아니더라도 인생에 고통이 점철되어 있다는 확신에서 출발하는 점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둘째, 암베드카르는 영혼이 생전의 업을 짊어지고 윤회한다는 것은 브라만의 교리가 불교에 혼입된 것으로 주장한다. 현세의 상황이 전생의 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빈곤과 차별받는 계급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현상의 책임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잘못된 논리라고 일축한다. 실제로 불교적으로 변용된 業說은 힌두교 일반의 윤회설과 달리 윤회의 주체로서의 영혼을 강조하지 않고, 무아설을 토대로 業만이 계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테면 유식파의 아뢰야식 이론도 이러한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암베드카르는 전통적인 업의 수용방식을 배제하고 스스로 합리적 해석을 꾀하고 있다.

셋째, 비구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암베드카르는 은둔생활보다 사회활동가 또는 사회설법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비구가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주의며 불교의 참 뜻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암베드카르는 그 시대상황에 맞는 응용윤리적 차원에서 열린 해석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다. 이처럼 불교의 본질인 ‘깨달음의 영성 세계’를 배제하고 새시대 구현의 목적 실현을 위한 열린자세는 인도에 새로운 불교인구를 포교하는 관건이 되었다. 이러한 자세에서 불가촉천민에 대한 자비의 실천은 신불교운동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27 V.B. Kadam: Notable Dates in the Life of Dr. Ambedkar, Milind Maha Vidyalaya Magazine, vol 7, Aurangabad, 1957. pp.48 ff.

최근 충북지역민의 ‘자비의 실천운동’ 또는 청주시민의 ‘직지찾기 운동’은 앞서 언급한 신불교운동의 성격을 드러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 불교계도 ‘복을 비는’ 기복 신앙을 탈피하여 ‘복을 짓고 세상을 개벽하는’ 신앙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불교계에서 불우 이웃이나 소년소녀 가장 돕기 및 결연 등이 생활화되어야 한다. 소외된 사람들이나 장애인, 실직자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이나 사회복지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자비보살행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를 향하여 열린 자세에서 봉사하기 위한 다양한 포교 방법을 연구하고 상담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열린 해석을 위한 실천 운동을 제대로 전개할 때, 다종교사회에 부응하는 불교인의 진보적 자세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

특히 사찰환경 수호 행위가 자칫 주민들에게 이해 다툼으로 비칠 수 있음에 유의하여, 평소부터 사찰이 환경보호에 힘쓰며 지역사회의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될 것이다. 평소에 지역사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무모한 개발정책을 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막아내야 한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한 명분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사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의 대안을 연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할 필요도 있다. 또 사찰 스스로도 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대작(大作)불사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건축불사를 하더라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사찰의 역사 전통을 존중하는 중도의 자세로 불사(佛事)를 해야 할 것이다.

## V. 맺음말

이제까지 우리는 충북 불교계의 현황과 문화적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으로 충북 불교계의 내실을 꾀하고 문화를 풍요롭게 일구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불교는 근본적으로 신행을 근본으로 한 자각의 종교이기 때문에, 충북불교계의 미래지향적 방향은 현장 결사운동을 전개함으로 불교적 정신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며, 아울러 현대의 문화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로운 대처방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우리는 ‘근본도량 세우기 운동’과 ‘현대문위기 돌파구 운동’으로 지칭하여 앞의 경우에는 근본불교정신으로 회귀하여 불교운동의 원칙적 명분을 확립하고, 뒤의 경우는 문화상대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포함하는 현대문화적 위기상태에 능동적으로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천운동으로 전개되어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먼저 ‘근본도량 세우기 운동’은 근본불교정신에 맞는 ‘네트워킹 구축운동’, ‘법음 조

직의 정비운동', '상징 활성화와 인재양성 운동'의 세 가지 운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는 곧 승풍 진작을 통한 올바른 수행자상을 확립하고 바람직한 신도상을 확립하여 근본불교정신을 제대로 질차탁마함을 뜻한다. 지금 여름과 겨울 한 철씩 선방을 개설하여 수행을 하고 있지만, 그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불교계의 여러 문제를 공론화하는 대승적 차원이라기보다 오히려 개인적 수도에 매달리는 형편에 있다. 그러므로 승가사회의 여러 문제를 공론화하고 좌선과 경학 그리고 포교 방법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현안의 과제를 집약하되, 수행을 통해 닦은 지혜의 방안을 현실과 접목시켜 이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그 가닥을 잡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북 소재의 승가대학 내에서도 과거의 전통을 답습하기보다 근본불교정신에 비추어 그동안의 폐습을 과감히 혁신하고 교육과정을 변혁시켜 근본불교정신에 부합되는 수행자상을 정립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현대문화위기 돌파구 운동'은 '복합 동기화(動機化)에 대한 돌파구 운동', '권력남용 저지와 운영투명을 위한 돌파구 운동', '열린 해석의 돌파구 운동'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이는 곧 현대의 충북 사회가 불교계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하여 다양한 방안을 살려내기 위한 운동을 뜻한다. 이를 위해 황폐해가는 농촌과 생태위기적 환경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사부대중이 하나가 되어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농촌을 외면하는 문화적 풍토에서 농촌을 생명의 보금자리로 일구기 위한 실천운동을 충북 불교계가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제는 입장료와 불전함의 수입에 의존하는 태도를 불식하고 생명운동의 구심점에 서서 충북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고 수범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때가 된 것이다. 더욱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생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불교적 세계관을 현대의 삶에 비추어 조망해주고 그 활로를 제시해 주는 과제는 생태위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 도굴이 심각해지는 시점에서 충북 불교계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과 함께 문화재 발굴 작업을 학연산 공동으로 추진하는 작업을 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실 붕괴가 심각해지는 오늘의 교육풍토를 감안하여 초·중·고등학교 대상의 생태체험 학교 운영, 중·고등학교 대상의 명상캠프 운영은 당연히 추구되어야 할 미래지향적 문화과제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이 붕괴되어 가는 문화적 위기에서 지혜와 자비 방안을 효율적으로 현대문화와 접목시키기 위한 운동을 우리는 '근본도량 세우기 운동'과 '현대문화위기 돌파구 운동'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는 곧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더불어 살아가

는 동체대비의 불교이념을 구현하여 충북사회 구성원에게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영섭, 『불교경전의 수사학적 표현』, 서울: 경서원, 1996.
- 김용정의, 『환경과 종교』, 서울: 민음사, 1997.
- 구미래, 『한국인의 상징세계』, 서울: 교보문고, 1994.
- 윤이흠, 『현대인의 삶과 종교』, 서울: 고려한림원, 1993.
- 정진홍외,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윤리』, 서울: 집문당, 1994.
- 음성군지편찬위원회, 『음성군지』, 1997.
- 청주시지편찬위원회, 『청주시지』, 1997..
-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 1997.
- Fasching, Darrel J. Forthcoming, *Comparative Religious Ethics: A Narrative Approach*. Oxford: Blackwell, 1994.
- Gomez-Ibanez, Daniel, "Moving Towards a Global Ethics", 1996, On-line posting, <http://www.silcom.com/-origin/sbcr/sbcr231>.
- Hans G. Kippenberg, *Religion and Reason*, 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0.
- Hick, John, *Problems of Religious Pluralism*,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5.
- TD Jeffrey. *Ethics after Babel*, Boston: Beacon Press, 1988.
- Kennedy, Paul.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1993). New York: Random House, 1993.
- Knitter, Paul F. *One Earth, Many Religions: Multifaith Dialogue and Global Responsibility*, Maryknoll, N.Y.: Orbis Books, 1995.